

소상공인 현장 중심의 밀착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천지점 개점식 가져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은 6월9일 포천지점 개점식을 갖고 포천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더 나은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개점식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서장원 포천시장, 이우형, 이주석 경기도의회 의원과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금융기관과 경기도중소기업협의회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포천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현장 중심의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경기도의 경제정책에 적극 부응해 우리 경제의 심장인 도내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용보증 지원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답보가 부족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로 신속한 보증지원을 실시하고자 15번째로 개점된 재단 포천지점 개점식을 축하한다"며 "경기도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지역의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욱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천지점 개점식에 이어 5군단 전역 예비장병, 경북대학교 대전대학교 등 예비군과 대학생, 중소기업인들 상대로 창업, 자금, 인력, 판로, 기술 등 각종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 해결해 주는 정책자금 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6월9일 포천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명회 및 창업 및 자금지원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천지점 개점으로 그동안 수도권경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기업 중심의 신용보증공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포천지점 개점을 통해 수원, 의정부, 성남, 부천, 평택, 안양, 고양, 안산, 화성, 남양주, 이천, 용인, 김포, 시흥으로 모두 15개 지점 체제가 되며, 경기도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밀착된 현장중심의 보증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경기도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축산분뇨 발효액비 생산 풍년 농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차원의 지원 절실

원유가 상승으로 농가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해 비료값을 걱정하고 있는 때에 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축산분뇨 발효액비를 연구, 생산한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있는 브나일농장에서 액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강병권(45·사진)씨다.

오랫동안 농장에서 일해 온 경험

을 바탕으로 강 씨는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농사가 잘 된다는 생각으로 토양을 개량하는 원리로 축산분뇨 발효액비를 사용함으로써 화액비로는 기존의 5~10%만 사용해도 풍년을 기약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강 씨는 브나일 농장에서 생산한 액비 6천톤을 40여만평의 농지에 뿌려 실험을 하고 있으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전문가의 연구를 거치고 이를 객관화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정책으로 입안하여 모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강 씨는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축산분뇨 발효액비 생산에 관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축산분뇨 액비를 뿌려 생산한 농작물은 99% 1등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가능성을 가진 액비를 브랜드화 하는 작업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맡아 주어야 한다.

특히 시설채소를 1년에 6회 정도 순환하는 농지의 경우는 지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휴경농지가 필요하다. 땅이 망가진다는 이야기다.

강 씨가 연구하는 축산분뇨 발효액비 생산 기술은 미생물인 락토의 무리 중 각 미생물 균의 특성을 활용한 배합비와 발효과정 중 발효 온도가 6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분뇨의 농도를 맞추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강 씨의 연구에 대해 포천시나 경기도, 정부의 관심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6 청하(淸河)해물탕

오랜 전통과 변함없는 맛을 추구하는 맛집



대표 강명희

포천시 소흘읍 지역에서 약 15년 동안 오랜 전통과 변함없는 맛을 추구하고 있는 청하(淸河)해물탕(소흘읍 소흘로 505-17대표: 강명희)은 포천시 이동교리에서 지난 1994년 7월에 오픈해 2005년 현 위치로 이전해 고객들에게 편안한 자리제공과 변함없는 맛을 제공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 청하 해물탕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강 대표는 인접지역인 의정부(용현동)에서 두 번째로 정통해물탕을 운영했으며 1994년에 이동교리에 정착해 산 낙지와 해물탕·찜, 이구탕·찜

맛이 어우러져 고객들의 입에 꼭 맞는 맞춤식 음식이 탄생된다. 오랜 세월동안 한 지역에서 음식업을 하다 보니 찾는 고객들의 질만 이상이 단골고객이며 고객들의 취향을 거의 알 수 있을 정도로 한다. 예를 들어 낙지 철판구이에도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요리를 좋아하는 고객도 있듯이 고객들의 입맛도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객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언제나 긴장감속에서 영업을 할 정도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주 메뉴인 산 낙지 철판구이는 대: 4만 원, 중: 3만원, 소: 2만원으로 고객 수에 따라 다양한 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노동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선호하는 메뉴로 인기가 있다. 이곳에서 낙지철판구이를 먹고 난 고객 대부분이 "맛있게 먹었다" 할 정도로 자신하는 메뉴라고 한다.

낙지가 주 메뉴인 연포탕은 시세가격을 받고 있으며, 각종 싱싱한 해산물과 온갖 야채와 양념이 가득 채워져 얼큰 담백하게 차려져 나오는 해물탕·찜은 대: 4만 5천원, 중: 3만 5천원으로 애주가들에게는 그만이다. 또 다른 메뉴인 이구탕·찜은 대: 3만 5천원, 중: 2만 5천원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 밖에 식사 메뉴로 알탕과 통태탕이 고객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강 대표는 "언제나 변함없이 찾아주는 고객들

언제나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고객들의 입맛에 꼭 맞는 맞춤식 음식제공에 최선의 노력

등의 메뉴를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다.

청하(淸河)해물탕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 메뉴인 산 낙지는 주로 전라남·북도 서해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갯벌이나 바위틈에서 자라며 부드럽고 담백한 맛과 저칼로리 스테미너 식품으로 납노동소가 즐겨 찾는 대표적인 해산물이다. 플라스틱틀을 역제하여 단백질·비타민 B2·인·칼·무기질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며 정약용의 자산어보에는 영양부족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소에게 낙지 서너 마리를 먹이면 발뻘 일어선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다. 그 만큼 예부터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메뉴다.

현재 청하(淸河)해물탕은 그날에 필요한 해산물과 낙지를 무안·강진에서 매일 공급받고 있다. 해산물과 낙지는 신선함이 제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해물탕에 부재료로 들어가는 냉동 해산물은 제외다. 신선한 해산물과 강 대표의 손

이 있었기에 이 만큼 살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 한다"며 "잊지 않고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더욱 더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현재는 음식점에도 예약 손님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시간이 넉넉하니 음식에 손이 한뼉이라도 더 가게 된다"고 예약해줄길 기대하고 있다.

송우리 홀플러스 맞은편, 기업은행 맞은편 경음빌딩내에 자리하고 있는 청하(淸河)해물탕은 양대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80~90명까지의 고객을 동시에 모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예약문의: 031)543-1192.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1994년에 이동교리에 정착해 산 낙지와 해물탕·찜, 이구탕·찜 등의 메뉴를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34> <글>

보험 가입은 수입의 15% 내외가 적정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기다리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에는 약정한 시간에 머물러 그만 아류를 고해 야 한다. 이제 보험에 대해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자.

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적은 돈을 모아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보험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만 다루어 보기로 하자.

우선 종신보험은 주보험이 사망을 종신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보장을 특약으로 선택하여 일정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암, 질병, 상해 등을 선택하여 보장의 범위를 넓혀준다. 기존에 있는 보험을 먼저 분석한 후에 가입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건강보험으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등 일정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보장대상의 범위가 넓은 것이 좋다. 보장기간도 길수록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기보험은 보장기간이 일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일반보험은 말 그대로 안을 보장 해 주

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고나 질병은 보험 계약과 동시에 보장 되지만, 암은 일정한 유예기간인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

민영의료보험은 질병, 사고 등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의 실제 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먼저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막는 것이 현명하다.

어린이 보험은 사망보다는 재해로 인한 골절,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한다. 어린이를 감점조절이 어려워 상태 아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다. 놀이로 인한 어 건물 등의 파손도 발생할 가능성이 반복하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의 보장이 있는 상품으로 가입 해 놓는 것이 좋다.

상해보험이 있는데 교통사고나 재해 사고 등으로 골절, 수술, 입원비 등을 보장하며 신체상해 50%이상 장애 등급판정 보험도 납입면제라는 특혜도 주어진다고 한다. 장애연금도 가입해 놓으면 좋다.

재테크에 유리한 변액보험은 보험금액이 변한다는 의미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펀드형식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형 보험이다. 변액유니버설은 은행의 입출금 기능과 펀드의 투자기능,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이 결합된 선진국 형 보험이다. 저금리 현상으로 이자수익을 바라볼 수 없기에 재산증식의 한계를 느껴 출시된 상품이다. 시장 이자율의 상승을 방어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있으며, 자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유동하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겸비한 상품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단 10년 이상 장기부자를 해야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 한 비파세 혜택과 함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비파세 통장이라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과 법적 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자기신체상해와 관련된 내용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가입한다. 최근 들어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있어 많이 가입되고 있다.

심각한 노후를 위하여 연금가입은 필수 노후자금은 장기이면서 나중에 필요한 자금이기에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변액연금을 추천

하고 싶다. 변액연금은 투자 수익률이 바닥을 쳐서 손실을 봐도 연금수령 시, 주보험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연금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손실률은 전혀 없다. 변액보험은 반드시 변액보험 자격증을 소유한 설계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기를 권한다. 연금수령 시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평균수령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유리하다.

보험 가입 시 가족의 병력을 확인 한 후에 하며 특약 활용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한다. 본인의 건강 상황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며 보장기간을 길게 하여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 한 비파세 혜택과 함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비파세 통장이라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보험 가입 여부도 수입의 15% 내외가 적정선이다.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바로! 보험가입을 서둘러 행복한 보험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정 코인시 포천영업소장 010-3023-0065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하신 박문수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1개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해 하려고 한다.

박문수 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신축해야 하나?

1. 세법규정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일부와 한 동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면적)주택 외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 주택 외 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절세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박문수 씨의 경우 지하층 지상층의 건물로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하여 주택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 단점도 있으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 ~ 4487/4502 ~ 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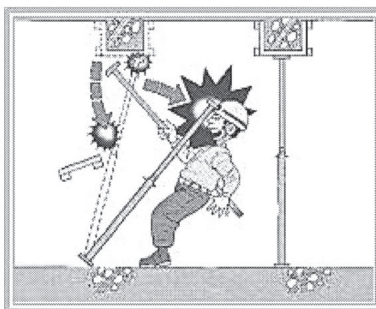
파이프포트가 두부강타로 전도

▶재해발생 개요

2006년06월01일0시경 협력업체 소속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거푸집지지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경사 버팀 Pipe Support를 피재자 방향으로 닿기는 순간 보 하부 거푸집이 콘크리트 구조에서 낙하·회전하면서 Pipe Support를 강타, Pipe Support가 뺨기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 가. 작업방법 불량
 - 보 하부 거푸집(중량물 270kg)을 일체로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하여는 해체거푸집 및 그 동바리가 작업자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장소로 탈락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미준수
 - 나.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중량물인 보 하부 거푸집(7.5m X 0.9m:중량 약 270kg)을 해체함에 있어서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미준수
- ▶중중재 예방대책
 - 가. 작업방법 개선
 - 보 하부 거푸집을 해체하는 때



에는 해체작업 전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거푸집의 낙하 및 Pipe Support의 전도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해체도구(지렛대 등)를 이용하여 Pipe Support와 보 하부 거푸집을 작업자의 반대방향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토록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급여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는 이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 가능

Q 국민연금을 수급하던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2개의 급여중 하나만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수급권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법에서는 이를 중복 급여로 조정하지 않고 각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4조(병급의 조정) 규정 삭제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다고 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받는 국민연금 급여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대체율 I】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가입기간은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 이후에 40%를 적용

급여수준을 2008년도에는 50%로, 이후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40%까지 인하한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인 납부한 보험료만큼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전법에서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었으나,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후세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내고 그에 맞는 적절한 연금을 받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Q 아, 그래요? 저는 2030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정도 납부한 것도 40%로 깎여서 받는다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에 따른 지급수준이 보장되므로 고객님이 10년 동안 내신 보험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2008년부터 내시는 보험료만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존법에 따라서 받으시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소득대체율 II】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가입기간은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 이후에 40%를 적용

Q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이 지금보다 연금액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납부한 것만큼 못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 (031-544-8700)